

청소년의 개인변인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변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 Individual and Family Relational Variables Perceived by
Adolescents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고정자

Dep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

Prof. : Ko, Jung Ja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how general trends in the psychological environment of family and problem behaviors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examine possible changes in such trends in accordance with the individual variables of adolescents, and then find out the effects of these variables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The subject were 1374 adolescents of middle school in Busan(male 698, female 676).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 (1) General trends in the degree of parental monitoring showed that girls had more high than boys, and in the degree of family discord, boys showed more high than girls. In the degree of opennes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perceived by adolescents showed that girls had more open communication with mother than boys. Such trends in problem behaviors indicated that adolescents had the attention problem most. According to gender, girls had more problems in withdrawal, somatic complain, anxiety/depression, thought problems, attention problems, destructivity/identity, internalizing problems, total behavior problems in comparison to boys. Boys did delinquent behaviors more than girls. (2) For boys, the monthly income of their family, family discord, and the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have a significant

Corresponding Author: Jung-Ja Ko,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ersity, Hadan-Dong 840, Saha-Gu, Busan 604-714,
Korea Tel: 82-51-200-7309 Fax:82-51-200-7306 E-mail:jjko@daunet.donga.ac.kr

* 이 논문은 2002년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공모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direct effect on internalizing problems, externalizing problems and total behavior problems. Besides mother's employment and the type of family have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behavior problem. For girls, mother's employment, parental monitoring, family discord, and father-adolescent communication have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internalizing problems. Mother's employment, family discord,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have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externalizing problems and total behavior problems. Besides mother's employment, grade, the type of family, dating have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behavior problem. (3) The variables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arental monitoring showed as the monthly income of their family, dating, mother's employment, the type of family, the family discord showed as mother's employment on th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howed as the type of family. (4) Family discord was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problem behavi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주제어(Key Words): 부모의 감독(parental monitoring), 가족 불화정도(the degree of family discord), 부모-자녀간 의사소통(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청소년 문제행동(problem behaviors of adolescents)

I. 서론

최근에 이르러 청소년기 학생들의 자살사건, 학교 내외의 폭력서클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 범 죄가 양적으로 늘어날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점차 포악해지며 저연령화되어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적 위치에서 자아의식과 현실적응 사이에 긴장과 소외, 혼돈을 경험하기 쉽다. 심리적 격동기에 있는 청소년은 수많은 갈등을 겪고 있으며, 그러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정서적, 행동적인 부적응 현상을 보이게 된다.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갈등을 내면적으로 겪다가 그것이 우울, 불안 증상으로 발전되어 점점 더 사회적으로 위축감을 갖게 되어 자학행동을 할 수도 있고, 외적으로 비행을 일으키거나 공격적 태도를 갖게 되어 반사회적인 성격을 형성하며 성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초기 청소년기는 생리학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어 긴장과 불안을 느끼는 시기이고, 자의식이 생겨 자기 자신을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시켜 객관화하여 보고 스스로 자아 정체감의 발견을 위해 전력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초기 청소년기에 있는 중학생의 적응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 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으로는 크게 개인적 요인

과 환경적 요인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지능이나 기질과 같은 선천적인 내부 특질인 유전적인 요인과 성장 발달 과정에서 갖게 되는 성격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환경적 요인은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경험하게 하는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생활의 장인 가정, 학교, 사회환경의 영향을 들고 있으나, 청소년 문제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심리적 가족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Clark과 Weninger(1964)는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규범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사회계층 요인들보다 부모의 행동에 대한 자녀의 적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또래와의 관계가 보다 중요시되면서 안전과 지지의 기반을 가족에서 친구관계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어 집에 있는 시간보다 집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이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부모의 통제와 감시 부족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많은 선행 연구(McCord, 1979; Olweus, 1980; Patterson, 1982; Williams, 1994; 백연화, 1998)에서 부모가 자녀의 행

동에 대한 명료한 기대를 설정하지 못하거나, 부모의 감시와 통제가 부족할 때, 부모의 자녀에 대한 훈육이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비밀관적일 때 청소년 자녀의 비행 및 물질남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입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시기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부모의 소극적 개입이 문제행동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Alexander(1973)는 비행가족과 정상가족의 상호작용을 비교한 결과 비행가족은 방어적인 의사소통이나 가족원 가운데 한사람에 의한 의사소통의 지배, 또는 대화의 초점이 맞지 않는 등의 혼란된 의사소통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가족의 심리적 환경이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자기통제력, 기질, 우울성향, 학교유형 등 청소년 개인내적 변인을 중심으로 파악하거나(김두섭·민수홍, 1996; 김정미, 1998; 김윤정, 1999; 박용규, 2000), 가족의 환경특성 중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형태,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 가족의 물리적, 구조적 환경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었다(우대식, 1992; 오미경, 1997; 이미애, 2001). 최근 가족 심리적 변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고성애, 1998; 강현미, 1999; 고상미, 2000; 최영화, 2003), 심리적 가정환경유형(김두섭, 2000), 모의 감독정도(박진경·도현심, 2001)에 대한 영향들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제행동을 살펴본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을 하나의 요인만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청소년 문제행동을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나 청소년 문제행동 자체가 심리적, 환경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므로 여러 요인을 모두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결손가정이나 빈곤가정의 청소년 뿐 아니라 부모가 모두 있는 중류가정의 청소년에게도 보

편화되고 있어, 가족 구조적인 환경과 함께 가족의 심리적 환경의 영향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청소년 문제행동에 있어 개인변인과, 가족 구조적 변인뿐 아니라 가족의 심리적 환경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인 남·여 중학생의 개인변인과 가족변인을 가족 구조적 변인, 가족 심리적 변인으로 구분하여 가족 구조적 변인에는 부모학력, 월소득, 모취업여부, 결손여부, 가족의 심리적 변인에는 부모의 감독정도, 가족의 불화정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포함시켜 이들 변인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인과적인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인과모형을 설정하여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과 사회전반에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인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나아가 청소년 문제의 예방책이나 해결방안 등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가족 심리적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하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청소년 문제행동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하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 청소년의 개인변인과 가족 구조적 변인, 가족 심리적 변인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 문제행동

문제행동은 대체로 그 적용 분야에 따라 의미와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는 부적응이나 이상행동, 사회병리학에서는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이나 비행(delinquency), 교육학에서는 문제행동, 요선도 행동,

또는 비행으로 불리워지는 경우가 많다(양정화, 1996). 그럼에도 각 분야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공통적 행위를 찾을 수 있다. 즉 문제행동은 법과 규범으로부터 이탈한 일탈행동, 가치 기준에서 탈락한 이상행동,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행동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 개인의 행동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청소년 문제행동이란 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치료라는 맥락에서 학습, 진학과 진로, 대인관계, 성격, 신체상, 성, 흡연, 음주, 유해업소 출입, 약물 남용, 가출, 폭력 등 청소년들이 당면할 수 있는 문제를 모두 고려하여 이에 대한 현황과 대처방법에도 관심을 갖는다.

청소년 문제행동에는 자신의 발달 단계에 위배된 행동, 또는 표출된 행동 자체가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벗어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행위의 결핍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행동은 단순히 개인적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관습과 규범 등에서 일탈된 행위로서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위와 범죄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청소년 문제행동에는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 반사회적 행동과 퇴행, 고립, 공상 등의 비사회적, 도덕적 행동, 발달과 수행상의 문제행동 및 일상적인 청소년의 고민과 가치관 혼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청소년 문제행동이란 청소년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적응해 가는 과정 속에서 법과 규범의 한계를 벗어난 반사회적 행동, 자신에게 해가 되는 비사회적 행동 및 심리적인 부적응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청소년 문제행동의 유형에 대해 McCord(1979)는 부모와의 관계성에서 형성되는 성격 역동적 측면에 기초를 두고, 사회화된 비행, 신경증적 비행, 정신병질적 비행으로 구분하였다. Quay(1972)는 비사회화된 공격성, 사회화된 공격성, 주의결손, 불안-위축으로 구분하였다. Donovan과 Jessor(1985)는 불법적 약물 이용, 비행행동, 성행동으로 구분하였으며, Kirt(1972)는 공격적 행동, 퇴행적 행동, 신체적 징후, 위축되거나

고립적인 행동, 두려움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Achenbach와 Edelbrock(1983)는 임상에서 사용되는 자녀행동목록(Child Behavior Check List: CBCL)을 통해 정신병, 우울, 사회적 위축, 강박성, 신체적 증상, 의사소통장애, 과활동성, 공격성, 비행성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Achenbach(1979)는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YSR)를 사용할 것을 권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오경자 등(1997)에 의해 표준화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YSR)가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Achenbach(1991)가 제작한 Youth Self-Report를 오경자·이혜련·홍강의·하은혜(1997)가 공동연구로 번안하여 표준화 절차를 거친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YSR)를 사용하고자 한다.

2. 개인변인 및 가족 구조적 변인과 청소년 문제 행동

지금까지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된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개인변인 및 가족 구조적 변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연구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문제행동을 일으킨다고 나타났으나(김주분, 1994; 김성연, 1998, 노성향, 1994), 노숙영(1998), 서선주(1999), 김혜영(2000), Stattin & Kerr(2000), 박진경·도현심(2001)의 연구결과 여학생이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세로(2000)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비행하위 영역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비행 모두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은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감소한다고(노성향, 1994; 김성연, 1998) 하였으나, 김주분(1994)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무관하다고 보았다. 기광도(2001)에 따르면,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

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이 강하게 되고, 이러한 감독이 강할수록 자녀는 비행행동을 덜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강현미(1999)에 따르면, 청소년 문제행동은 성별, 연령, 가족유형, 가족소득, 부의 직업, 모의 학력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문제행동이 많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문제행동이 증가하였다. 가족 유형에 따라서는 계부, 편부 가정이 문제행동 빈도가 높았으며, 가족 소득이 중상이상인 집단에서 성인모방행위, 폭력 및 도적이탈행위, 성향락행위 등의 문제행동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일반적으로 가정소득, 부의 직업, 부의 교육수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가정소득이 적을수록(신효식·이경주, 1998; 한미현, 1996), 부의 직업이 단순노무직일수록(한미현, 1996), 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신효식·이경주, 1998; 한미현, 1996)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나타났다.

모의 취업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가정에서의 감시의 부재, 자녀의 행동에 대한 인지의 어려움 및 자녀의 잘못에 대한 효과적 처벌의 어려움을 야기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인들은 가정에서의 적절한 자녀양육을 어렵게 함으로써 결국 비행이나 문제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McCord, 1991; Gibbs, Giever & Martin, 1998; Wells and Rankin, 1988; Polakowski, 1994).

3. 가족 심리적 변인과 문제행동

1) 부모의 감독

청소년기에 이르면 아이들은 더 이상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만 생활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부모와 형제간의 관계에서 벗어나, 이웃, 사회 환경과의 폭넓은 접촉을 가지게 되며, 그 접촉의 양만큼이나 영향을 받게 된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사귀는 가운데서 무절제한 폭력물에도 노출될 수 있으며 싸움 등 비행에도 여과 없이 노출된다. 이러한 가정 이외의 영향들, 부모의 영향권 밖에서 자녀의 활동에 주위를 기울이

고 조절하는 감독자로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비행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인 유대, 즉 부모와 자녀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부모가 자녀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통제, 적절한 관심 등은 자녀의 건전한 발달과 사회화에 있어 필수적이고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김연수, 2000).

감시 또는 감독은 자녀의 친구관계, 가정 밖에서의 활동양상과 장소 등에 대해 부모가 파악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효과적인 감시는 귀가시간, 친구관계,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 가서는 안될 장소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에 대한 의사소통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규정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러한 규정을 지키는 지를 점검 및 확인하고,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효과적인 훈육을 해야 한다.

부모의 감독과 비행간의 상관성은 많은 경험적 연구(Wilson, 1980; Weintraub & Gold, 1991; Kerr & Stattin, 2000; 박진경·도현심, 2001)에서 뒷받침되었다. 그 결과 부모의 감독은 특히 비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Wilson, 1980; Cernkovich and Giordano, 1987; Smith and Paternoster, 1987). 부모의 지나친 억압이 아닌 부모의 적절한 감독은 주위환경의 영향을 완충시키며 위험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자녀에 대한 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의 부모는 자녀의 활동이나 문제들을 잘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에서의 문제점이나 또래와의 싸움 등 집밖에서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인식하기 어렵다. 자녀를 많이 갖지 않는 현대 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지나친 과잉보호 또한 훈육결함 가족을 발생시킨다. 이와 같은 훈육과 감독상태의 결함이 발생한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은 주변의 나쁜 상황과 쉽게 결합되며 비행의 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아진다(송광섭, 1998). 또한 감독의 결여는 더 나가서 자녀의 비행 친구들과의 어울림이나 반사회적 활동 속에 자녀가 빠져들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부모의 감독 없이 방치된 상태로 자녀는 방과후 거리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또래 집단에 무분

별하게 휩싸일 수 있다.

Jensen(1972)은 부모의 지지나 감독이 비행친구의 수 또는 비행에 긍정적인 가치의 소유여부에 관계 없이 비행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모의 감독이 비행에 대해서 독립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Loeber와 Stoutnamer-Loeber(1986)는 부모의 감독 태만과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연구의 85%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격려자라는 부모 역할이 강조되어지며, 자녀의 활동 반경이 가정 내에서 가정 외로 확장되면서부터 부모의 역할은 또래 선택·접촉 기회·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조절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의사소통이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계획된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정유미(1997)는 “인간의 감정, 느낌, 태도, 생각 등의 메시지를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통하여 상호간의 행동에 주고받는 매개체로서 대인관계의 순환적인 과정 및 행동”이라 하였다. Galvin과 Brommel(1986)은 가족 의사소통 측면에서 의사소통을 “상징적 거래과정” 즉 “의미들을 창조하고 공유하는 과정”으로 보고 만일 의미를 상호간에 공유하지 못할 때는 의사소통이 매우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공감하면서 경청한다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증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보다도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협동을 통한 사회 유지 기능으로 특히 현대와 같이 이질화되어 가는 사회에서의 의사소통 역할은 중요하다. 부모들이 청소년기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고 공감하면서 경청한다면 세대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사춘기 자녀들의 행동특성을 바람직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기술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경화(1989)는 자녀에게 지나치게 독선적이고

무조건 복종과 충성을 요구하며 평가적이고 모순된 특성을 지닌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주요요인이라고 하였다. 김윤희(1989)는 자녀의 비행을 역기능적인 부모의 역할수행 및 부모-자녀간의 상호관계, 가족 기능에 의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청소년 비행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면서, 이들의 선도와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는 가족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으로 애정적 결속을 융통성있게 조절함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민하영(1991)은 청소년 비행이 부모와의 거리감 있는 의사소통으로 인한 상호이해 부족 및 통제력 약화, 바람직한 행동지도의 기회부족으로부터 형성되므로 가족원간의 심리적인 유대 강화 및 청소년기 자녀와의 새로운 역할관계가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정유미(1997)의 연구에 따르면, 여학생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할수록 문제행동을 적게 하였고, 역기능적으로 할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매개 변인이었으며, 가정환경요인인 가정화목도와 가족형태는 의사소통을 매개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선행연구에서 환경변인과의 관계를 보면 부모의 교육수준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이선자·정명숙, 1979).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고소득 집단이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이경주, 1989; 김인희, 1993) 반면에 부모의 소득이 차이를 주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었다(김진숙, 1984; 장호선, 1987; 박은주, 1994). 이금(1993)은 어머니가 직업이 있을 때는 부정적 대화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지만,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의사소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오연옥, 1988; 김오남, 1994)도 있었다. 권혜진·윤종희(1993)는 아버지의 직업이 공무원, 회사원일 때 자녀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하였다. 오연옥(1988)의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적

은 집단에서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고, 신수정(1994)은 형제 수가 적은 집단이 아버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3) 가족간의 불화

가족의 분위기는 부모, 자녀간의 관계는 물론이고 부부간의 관계, 다른 형제들간의 관계, 부모와 형제들간의 관계 등이 복합되어 작용한다. 가족의 긍정적인 유대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사회화에 있어 필수 요인이고, 가족 구성원간에 원만하지 못한 관계는 청소년 비행을 발생시키는 근원이 된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가족구성원내에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자가 있거나 가족이 일반적인 도덕수준이 낮아 가족통제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자칫 가정에 대해 반감을 가져 비행 청소년이 될 수 있다.

가족간의 갈등현상이 심화되면 가정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자녀들이 가정에 들어오기를 꺼리게 되어 결국은 가출 등으로 방황하다 불량한 교우관계가 형성되어 비행을 저지르기 쉽다. 또한 이런 갈등현상으로 청소년들의 인격이 비정상적이 되거나 부정적으로 형성되기 쉽다. 특히 가족원간의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유대감 부족은 마음의 안정을 잃게 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가족의 결속과 신뢰에 커다란 혼란을 느끼게 하며, 이에 대한 위안을 찾기 위하여 가정 밖에서 해매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비행에 쉽게 빠지게 한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사이의 관계 회복과 부모들간의 갈등해소가 절실하다. 부모 자신이 자존심을 갖는 것 같이 자녀들의 자존심도 존중해주고 충고나 지시할 때는 미리 그 말에 대한 부모자신의 충분한 이해, 즉 자녀의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

이상의 가족관련 변인을 적용시킨 연구를 보면, 윤덕중(1984), 김연수(2000)는 청소년들을 불량학생과 일반학생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과 부부간에 불화, 부모의 편

애,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모델이 되지 못할 때 비행과 일탈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가정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에 있어서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애정과 존경,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생활공동체로서 그곳에서 사회생활의 태도를 배우고 적응하며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박임규(1996)는 부모의 이혼, 별거, 맞벌이, 과보호 등이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여, 부모와의 동거여부, 훈육 방침이 비민주적일 때, 칭찬보다는 처벌위주일 때 비행이 증가했고, 애정과 진실도가 있는 부모의 자녀일수록 비행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그 중에서 부부의 불화로 인한 이혼을 증가는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비행과 무관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청소년 비행은 가정의 중요성과 가족간의 관계, 특히 부모의 교육, 관심, 부모의 본보기 삶과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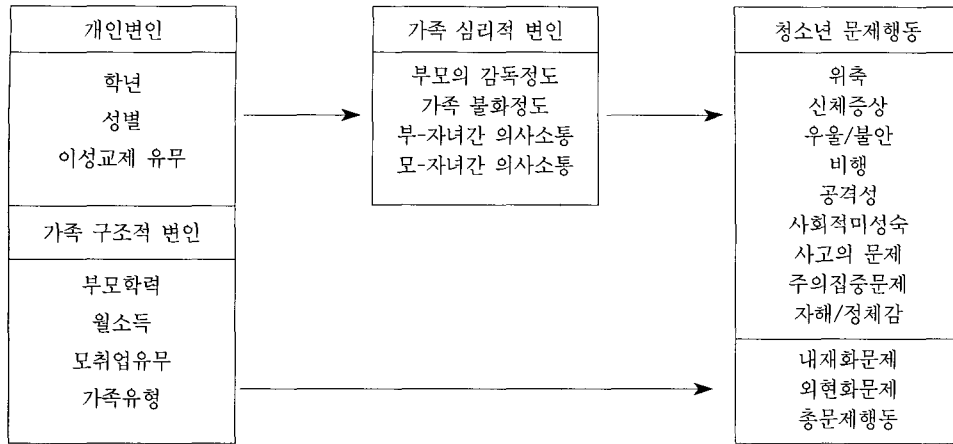
1. 연구모형

선행연구 및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부산 시내에 소재하는 중학교 1, 2, 3학년 남·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에 앞서 부산시내 소재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하여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부적절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용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는 2002년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부산 시내 중학교 1, 2, 3학년 남·여학생 16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1567매였으나, 그 중 기재누락이 많은 부실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1374매



<그림 1> 연구모형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374)

변인	집단	빈도(명)	백분율(%)	변인	집단	빈도	백분율	
성별	남	698	50.8	종교	기독교	293	21.3	
	여	676	49.2		천주교	127	9.2	
학년	1학년	484	35.2		불교	473	34.4	
	2학년	446	32.5		무교	451	32.8	
	3학년	444	32.3		기타	30	2.2	
아버지 연령	40세 이하	114	8.6		어머니 연령	40세 이하	399	29.9
	41세-45세	617	46.4			41세-45세	670	50.2
	46세-50세	466	35.1			46세-50세	228	17.1
	51세 이상	132	9.9	51세 이상		38	2.8	
아버지 교육수준	중졸 이하	97	7.2	어머니 교육수준	중졸 이하	152	11.3	
	고졸 이하	565	42.0		고졸 이하	715	53.3	
	대학졸 이상	682	50.7		대학졸 이상	475	35.4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93	7.2	가족유형	부모님과 함께	1256	92.1	
	100-200만원 미만	460	35.5		친부·계모와 함께	35	2.6	
	200-300만원 미만	419	32.4		친모·계부와 함께	8	0.6	
	300-400만원 미만	170	13.1		어머니하고만	30	2.2	
	400만원 이상	153	11.8		아버지하고만	15	1.1	
어머니 취업유무	취업모	568	44.4		기타	20	1.5	
	비취업모	711	55.6	이성교제 유무	이성친구있다	274	20.2	
			이성교제경험있다		377	27.6		
			이성교제경험없다		716	52.4		

의 질문지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청소년 개인변인, 가족 구조적 변인, 가족심리적 변인,

그리고 청소년 문제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1) 청소년 개인변인

개인변인으로 성별, 학년 이성교제유무를 포함시켰으며, 성별은 남녀로, 학년은 1, 2, 3학년, 이성교제 유무는 이성친구가 있다,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다, 이성교제의 경험이 없다고 구성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2) 가족구조적 변인

가족구조적 변인에는 부모학력, 월 소득, 모 취업 유무, 가족유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모학력과 월 소득은 교육연수와 가족의 월 소득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가족유형은 양친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정상가정과, 편부모·계부모가정의 두 집단으로 재구성하였다.

3) 가족의 심리적 변인

가족의 심리적 변인으로는 부모의 감독 정도, 가족불화정도,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1) 부모의 감독 정도

부모의 감독정도는 박성수(1994), 김준호·김은경(1995)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총 10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의 감독 정도는 Likert형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여, 이 척도의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며, 각 문항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즉, 부모의 감독 정도 점수가 높을수록 평소에 부모가 자녀의 생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항분석결과 전체에 대한 각 문항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10문항 모두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감독 정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87$ 로 나타났다.

(2) 가족의 불화정도

가족의 불화정도는 김준호·김은경(1995), 고성혜(1994)의 연구를 참고로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며, 가족내 적대적이고 비우호적인 분위기와 부모간, 형제자매간 갈등여부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되어 있다. 이 척도는 Likert형 5점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5점, '매우 그렇다'에 1점을 부여하여, 척도의 점수 범위는 12점에서 60점까지이며, 가족의 불화 정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내에 적대적이고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주를 이루고, 부모간 혹은 형제자매간 갈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문항분석결과 전체에 대한 각 문항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12문항 모두를 사용하였다. 가족의 불화 정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86$ 로 나타났다.

(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정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는 Barnes와 Olson(1982)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중 청소년 자녀용 설문지(Adolescent Form)를 이용하여 총 20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부와 자녀, 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에 있어 개방성 정도와 문제성 정도를 측정하는 2개의 하위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는 Likert형 5점 척도로 개방형 의사소통 문항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으며 문제형 의사소통 문항은 역산하였다.

문항분석 결과 전체에 대한 각 문항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20문항 모두를 사용하였다. 부-자녀간 의사소통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83$ 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86$ 로 나타났다.

4) 청소년 문제행동

청소년 문제행동 척도는 Achenbach(1991)가 제작한 Youth Self-Report를 오경자·이혜련·홍강의·하은혜(1997)의 공동연구로 번안하여 표준화시킨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YSR)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능력과 문제행동을 설문형식으로 측정하는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만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총 1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은 위축,

〈표 2〉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의 하위영역 및 문항번호와 신뢰도

하위 영역별 척도	신뢰도 계수	문항수(원점수 범위)	문항번호
내재화 문제	.90	30(0-60점)*(108번 중복)	위축 + 신체증상 + 우울/불안 척도
외현화 문제	.88	30(0-60점)	비행 + 공격성 척도
총 문제행동	.95	94(0-190점)	하위 영역을 모두 합한 값

* 108번 문항은 위축과 우울/불안에 모두 해당되므로 내재화 문제행동 점수 계산시 한번만 계산해야 함.

신체증상, 우울/불안, 비행, 공격성,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 집중 문제, 자해/정체감의 9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크게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총 문제행동으로 구분하여 평가된다.

각 문항에 기술되어 있는 문제행동은 청소년 자신에 의해 평정되는데 각 항목은 0점(전혀 아니다), 1점(가끔 그렇다), 2점(자주 그렇다)의 Likert식 3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영역의 표준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규정하였다. 단, filler문항(6, 15, 28, 49, 64, 65, 78, 83, 85, 93, 97, 103, 111, 112, 113, 114)을 제외한 94문항에 대해서만 배점하였다.

문항분석 결과 전체에 대한 각 문항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117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95$ 이며 하위영역별 신뢰도와 문항번호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자료처리는 SPSS/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작성을 위하여 문항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개인변인, 가족의 구조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 및 청소년 문제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남녀간의 차이검증을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

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해석

1. 가족심리적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심리적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따르면 부모의 감독정도는 남학생은 평균 34.75점(범위 10-50), 여학생은 평균 36.10점으로 척도의 중간값(30점)과 비교해 볼 때, 남·여학생의 부모의 감독정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p < .001$ 수준($t = -4.762$)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의 감독정도가 높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가족 불화정도는 남학생의 경우 평균 25.93점(범위 12-60), 여학생의 경우 평균 25.09점으로 척도의 중간값(36점)과 비교해 볼 때, 남·여학생 모두 가족 불화정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p < .01$ 수준($t = 2.852$)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가족 불화정도를 더 높게 인지하고 있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중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정도는 남학생은 평균 65.78점(범위 20-100), 여학생은 평균 62.21점이고, 척도의 중간값(60점)과 비교해 볼 때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남·여학생 모두 중간 수준이었다.

〈표 3〉 가족의 심리적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

N=1374

변인	남학생		여학생		t값
	M	SD	M	SD	
부모의 감독정도	34.75	7.14	36.10	7.29	-4.762***
가족의 불화정도	25.93	7.79	25.09	7.86	2.852**
부-자녀간 의사소통	61.78	10.44	62.21	11.75	-1.054
모-자녀간 의사소통	67.37	10.70	70.03	11.85	-6.213*

*p<.05 **p<.01 ***p<.001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정도는 남학생은 평균 67.37점, 여학생은 평균 70.03점으로 나타나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남학생은 중간수준, 여학생은 중간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p<.05수준(t=-6.213)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머니와의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 문제행동의 일반적인 경향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를 중심으로 하위영역별로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t-test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문제행동의 경우, 12개 하위척도의 점수의 평균은 중간정도의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주의집중 문제가 M=3.56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공격성(M=3.11), 위축(M=3.06), 우울/불안(M=2.87)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차이를 살펴본 결과, 12개의 하위척도 중 공격성, 사회적 미성숙, 외현화 문제 영역을 제외한 9개 하위척도에서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 중 비행에서는 p<.01수준(t=2.764)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비행행동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외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자해/정체감, 내재화 문제, 총 문제행동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표 4〉 청소년 문제행동의 일반적인 경향

N=1374

변인	남학생		여학생		계		t'
	M	SD	M	SD	M	SD	
위축	2.87	2.74	3.18	2.70	3.06	2.72	-4.315***
신체증상	2.11	3.21	2.63	3.39	2.43	3.35	-6.689***
우울/불안	2.64	5.63	3.00	5.57	2.87	5.62	-5.467***
비행	2.09	3.71	1.92	3.49	1.98	3.58	2.764**
공격성	3.04	6.03	3.15	5.81	3.11	5.90	-1.905
사회적미성숙	2.20	2.47	2.22	2.20	2.21	2.31	-.396
사고의 문제	2.36	2.60	2.57	2.55	2.49	2.57	-2.977**
주의집중문제	3.42	3.14	3.64	3.14	3.56	3.15	-3.272**
자해/정체감	2.24	4.00	2.56	3.96	2.44	4.00	-5.304***
내재화문제	2.57	9.84	2.94	9.76	2.80	9.85	-6.007***
외현화문제	2.69	8.95	2.70	8.40	2.69	8.61	-.167
총 문제행동	2.63	26.80	2.83	25.42	2.75	26.02	-3.892***

p<.01 *p<.001

3. 청소년의 개인변인과 가족변인이 청소년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개인변인과 가족변인이 청소년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년(Y1, Y2), 부모학력, 월소득, 모취업유무, 결혼가정여부, 이

성교제(D1, D2)를 독립변수로 하였으며, 부모의 감독 정도, 가족의 불화정도, 부-자녀간 의사소통, 모-자녀간 의사소통을 매개변수로 하고 청소년 문제행동(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총 문제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변수 중 명명척도로 되어 있는 학년, 모 취업유무, 가족유형, 이성교

<표 5>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남학생)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학년(Y1)	1.00														
2. 학년(Y2)	-.476**	1.00													
3. 부모학력	-.026	.011	1.00												
4. 월소득	-.026	-.011	.325**	1.00											
5. 모취업유무	-.026	-.013	.050	-.137**	1.00										
6. 이성교제(D1)	-.028	.047	-.034	-.074	.015	1.00									
7. 이성교제(D2)	.057	-.046	.006	-.003	.011	-.627**	1.00								
8. 가족유형	-.036	.046	-.086*	-.080*	-.122**	-.069	-.029	1.00							
9. 부모감독정도	.037	-.020	.124**	.091*	.230**	.081*	-.007	-.181**	1.00						
10. 가정불화정도	-.014	.031	-.026	.021	-.114**	-.058	-.009	.141**	-.425**	1.00					
11. 부와의사소통	-.011	.000	.051	.017	.103**	-.024	.037	-.054	.298**	-.557**	1.00				
12. 모와의사소통	-.004	-.018	.019	-.031	.097**	.029	-.035	-.171**	.309**	-.497**	.454**	1.00			
13. 내재화문제	.000	-.002	.026	.107**	-.055	-.121**	.064	.048	-.223**	.422**	-.258**	-.284**	1.00		
14. 외현화문제	-.037	.017	-.036	.116**	-.022	-.125**	.056	.041	-.211**	.434**	-.239**	-.348**	.736**	1.00	
15. 총문제행동	-.020	.007	-.008	.116**	-.048	-.128**	.061	.056	-.243**	.465**	-.280**	-.365**	.925**	.913**	1.00

*p<.01 **p<.001

<표 6>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여학생)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학년(Y1)	1.00														
2. 학년(Y2)	-.482**	1.00													
3. 부모학력	.081*	-.061	1.00												
4. 월소득	-.066	-.016	.303**	1.00											
5. 모취업유무	.011	.054	.081*	-.067	1.00										
6. 이성교제(D1)	-.066	.024	-.052	-.028	.107**	1.00									
7. 이성교제(D2)	.029	-.045	-.040	-.064	-.051	-.668**	1.00								
8. 가족유형	.004	.047	-.092*	-.135**	-.068	-.030	-.038	1.00							
9. 부모감독정도	-.070	-.001	.101**	.075	.154**	.123**	.026	-.268**	1.00						
10. 가정불화정도	.050	.061	.010	-.023	-.171**	-.031	-.044	.150**	-.429**	1.00					
11. 부와의사소통	-.081*	-.060	-.015	.078*	.020	-.011	.072	-.079*	.233**	-.470**	1.00				
12. 모와의사소통	-.129**	-.053	.009	.004	.072	.075	.018	-.099*	.362**	-.560**	.491**	1.00			
13. 내재화문제	-.013	.071	-.065	.018	-.141**	-.019	-.016	.079*	-.118**	.395**	-.274**	-.301**	1.00		
14. 외현화문제	-.058	.101**	-.044	.056	-.152**	-.102**	.029	.070	-.201**	.425**	-.220**	-.310**	.706**	1.00	
15. 총문제행동	-.039	.099*	-.064	.031	-.147**	-.052	-.008	.090*	-.178**	.464**	-.288**	-.349**	.922**	.897**	1.00

*p<.01 **p<.001

제는 가변수(dummy)로 처리하여 적용하였다.

경로분석에 앞서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5〉(표 6) 참조) $r=0.7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배제되었고, 오차항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Durbin-Watson test를 한 결과 계수가 1.597~1.849 사이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켰다.

경로분석 결과 $p<0.05$ 수준에서 유의한 변수만을 인과모형에 도식화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는 β 계수로 나타내었다.

1) 남학생의 경로분석

남학생의 경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첫 단계에서는 가족의 심리적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청소년 개인변인과 가족 구조적 변인을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두번째 단계에서는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개인변인과 가족변인을 독립변수로 입력하여 경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남학생의 부모 감독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이성교제(D1: $\beta=0.106$), 월 소득($\beta=0.136$), 모 취업여부($\beta=0.246$), 가족유형($\beta=-0.130$) 변인이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1.0%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들은 이성친구가 없는 경우와 월 소득이 많을수록,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정상가정에서 부모의 감독정도가 높은 것으로 인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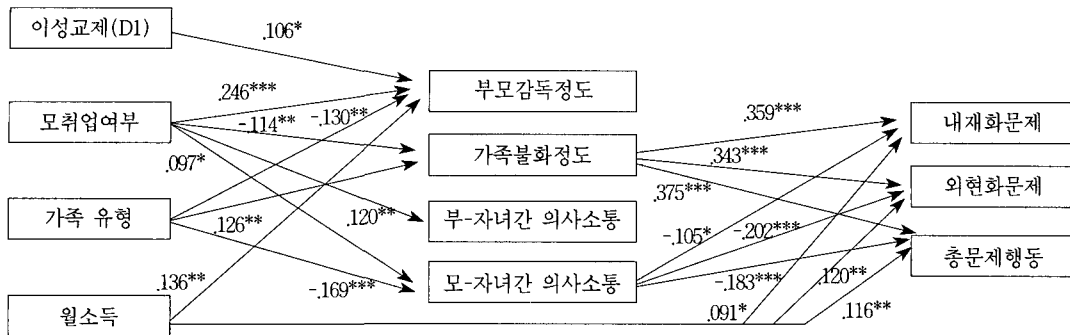
남학생의 가족 불화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 취업유무($\beta=-0.114$), 가족유형($\beta=0.126$)이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6%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와 정상가정보다는 편부모, 계부모가정에서 가족 불화정도가 높은 것으로 인지하였다. 남학생의 부-자녀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 취업유무($\beta=0.120$)로 전업주부의 자녀가 아버지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 취업여부($\beta=0.097$), 가족유형($\beta=-0.169$)이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2%로 나타

〈표 7〉 남학생의 개인변인과 가족구조적 변인이 가족심리적 변인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변 인	부모 감독정도	가족 불화정도	부-자녀간 의사소통	모-자녀간 의사소통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
학년(Y1)	.038	-.013	.001	.006	.039	-.035	.002
학년(Y2)	.031	.013	.017	-.026	-.004	-.006	-.005
이성교제(D1)	.106*	-.051	-.015	-.032	-.039	-.059	-.045
이성교제(D2)	.073	-.035	.051	-.058	.009	-.029	-.009
부모학력	.080	-.040	.060	.018	.027	-.070	-.024
월소득	.136**	-.011	.022	-.018	.091*	.120**	.116**
모취업여부	.246***	-.114**	.120**	.097*	.026	.061	.045
가족유형	-.130**	.126**	-.029	-.169***	-.012	-.016	-.007
부모감독정도					-.051	-.035	-.050
가족불화정도					.359***	.343***	.375***
부-자녀간 의사소통					-.010	.047	.016
모-자녀간 의사소통					-.105*	-.202***	-.183***
상수	27.382	28.663	59.247	67.603	9.450	15.699	44.004
Adjusted R ²	.110	.026	.012	.032	.199	.221	.256
F값	10.200***	2.993**	1.867	3.437**	13.203***	14.993***	17.961***
D-W 계수	1.607	1.741	1.883	1.859	1.795	1.761	1.767

* $p<0.05$ ** $p<0.01$ *** $p<0.001$

a : 표준화된 회귀계수(β 값)



〈그림 2〉 남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인과모형

났다. 즉, 남학생은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 정상가정일 경우 어머니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번째 단계로 청소년의 개인변인과 가족변인(구조적 변인, 심리적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인과모형을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표 7〉과 〈그림 2〉에 의하면 남학생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정의 월 소득, 가족의 불화정도, 모-자녀간 의사소통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내재화문제 19.9%, 외현화문제 22.1%, 총 문제행동 25.6%였다. 즉, 남학생은 월 소득이 적을수록, 가족의 불화정도가 낮을수록, 어머니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 할수록 문제행동을 적게 하였다.

그 외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모 취업유무와 가족유형 변인은 가족의 불화정도와 모-자녀간 의사소통을 통하여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남학생은 어머니가 취업모이며 편부모, 계부모가정일 경우 가족의 불화정도가 높아지며,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이것이 남학생의 문제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쳐서 문제행동이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변인들이 남학생의 내재화, 외현화문제, 총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것은 〈표 8〉과 같다.

2) 여학생의 경로분석

여학생의 경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첫 단계에서는 가족의 심리적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청소년 개인변인과 가족구조적 변인을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두번째 단계에서는 내재화, 외현화문제와 총 문제행동을 중

〈표 8〉 남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효과

변인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가족 불화	모-자녀 의사소통			가족 불화	모-자녀 의사소통			가족 불화	모-자녀 의사소통
월소득	.091	.091	-	-	.120	.120	-	-	.116	.116	-	-
모취업여부	-.052	-	-.044	-.008	-.059	-	-.039	-.020	-.061	-	-.043	-.018
가족유형	.063	-	.045	.018	.077	-	.043	.034	.078	-	.047	.031
가족 불화정도	.359	.359	-	-	.343	.343	-	-	.375	.375	-	-
모-자녀간 의사소통	-.105	-.105	-	-	-.202	-.202	-	-	-.183	-.183	-	-

〈표 9〉 여학생의 개인변인과 가족의 구조적 변인이 가족의 심리적 변인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변 인	부모 감독정도	가족 불화정도	부-자녀간 의사소통	모-자녀간 의사소통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
학년(Y1)	-.089*	.097*	-.147**	-.180***	-.022	-.082	-.060
학년(Y2)	-.038	.117*	-.145**	-.125**	.015	.035	.025
이성교제(D1)	.225***	-.068	.043	.142*	-.027	-.081	-.054
이성교제(D2)	.149**	-.071	.077	.106	-.020	-.016	-.031
부모학력	.058	.064	-.037	.008	-.055	-.053	-.061
월소득	.045	-.015	.052	-.042	.036	.055	.046
모취업여부	.131**	-.176***	.051	.044	-.085*	-.085*	-.077*
가족유형	-.247***	.145***	-.038	-.092*	.039	.010	.029
부모감독정도					.112*	.024	.075
가족불화정도					.303***	.343***	.361***
부-자녀간 의사소통					-.122**	-.012	-.083
모-자녀간 의사소통					-.100*	-.120*	-.123*
상수	30258	25290	63869	69358	16881	14437	44004
Adjusted R ²	.126	.061	.020	.043	.176	.203	.256
F값	11.617***	5.776***	2.528*	4.271***	11.466***	13.423***	17.961***
D-W 계수	1.697	1.503	1.830	1.658	1.702	1.812	1.767

*p<.05 **p<.01 ***p<.001

a : 표준화된 회귀계수(β값)

속변인으로 하고 개인변인과 가족변인을 독립변수로 입력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여학생의 부모 감독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은 학년(Y1: β=-.089), 이성교제(D1: β=.225, D2: β=.149)였으며, 가족구조적 변인으로는 모 취업여부(β=.131), 가족유형(β=-.247)변인이 영향을 미쳤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2.6%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은 1학년이 2학년보다,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경우,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와 정상가정에서 부모의 감독정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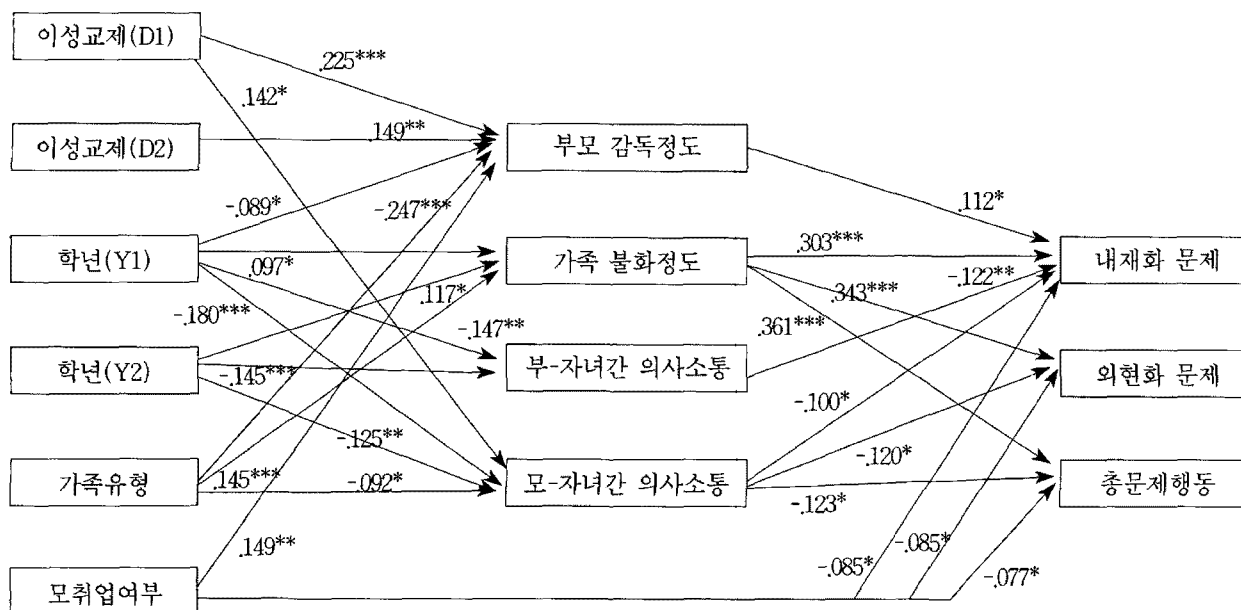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 부모의 감독수준을 높게 지각한 것은 박진경·도현심(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직장에서의 일에 빠져 있으면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거나 조언해 주지 못하고,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알아채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취업을 한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감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여학생의 가족 불화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년(Y1: β=.097, Y2: β=.117), 모 취업여부(β=-.176), 가족유형(β=.145)이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6.1%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은 1학년보다 2, 3학년이,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정상가정보다 편부모가정이나 계부모가정의 자녀가 가정 불화정도가 높은 것으로 인지하였다.

여학생의 부-자녀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년(Y1: β=-.147, Y2: β=-.145)이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0%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년(Y1: β=-.180, Y2: β=-.125), 이성교제(D1: β=.142), 가족유형(β=-.092)이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3%로 나타났다. 즉 2, 3학년보다 1학년 여학생이 아버지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으며, 2, 3학년보다 1학년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집단보다는 경험이 있는 집단과 정상가정일 경우 어머니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로 개인변인과 가족변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그림 3〉 여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인과모형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인과모형을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3〉와 같다.

〈표 9〉〈그림 3〉에 의하면 여학생의 내재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모 취업여부 ($\beta = -.085$), 부모 감독정도 ($\beta = .112$), 가족의 불화정도 ($\beta = .30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beta = -.122 / -.100$)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7.6%였다. 즉, 여학생은 어머니가 취업모인 경우, 부모 감독정도가 높을수록, 아버지,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자녀는 위축되고 불안하며 우울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내재화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년(Y1), 모 취업여부, 가족유형, 이성교제(D1, D2)는 부모 감독정도를 통하여, 학년(Y1, Y2), 가족유형, 모 취업여부는 가족불화정도를 통하여, 학년(Y1, Y2)은 부-자녀간 의사소통을 통하여, 학년(Y1, Y2), 이성교제(D1), 가족유형은 모-자녀간 의사소통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여학생은 2학년보다 1학년이,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거나 현재 교제를 하고 있는 경우, 어머니가 전업주부이며, 정상가정에서 부모의 감독정도가 높으며, 1학년보다 2, 3학년이, 정상가족보다는 편부모가정이나 계

부모가정이, 어머니가 취업모인 경우 가족 불화정도가 높고, 1학년보다 2, 3학년 여학생이 아버지와 대화가 원활하지 못하며, 1학년보다 2, 3학년이,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는 경우, 편부모가정이나 계부모가정의 경우 어머니와의 대화가 개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이것이 여학생의 내재화 문제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학생의 외현화문제와 총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모 취업여부, 가족불화정도, 모-자녀간 의사소통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가 외현화문제를 설명하는 정도는 20.3%였으며 총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정도는 25.6%였다. 즉, 여학생은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와 가족불화정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수록 외현화문제와 총 문제행동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 외 외현화문제와 총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년(Y1, Y2), 모 취업여부, 가족유형변인이 가족 불화정도를 통하여, 학년(Y1, Y2), 가족유형, 이성교제(D1) 변인은 모-자녀간 의사소통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여학생은 1학년보다 2, 3학년이, 어머니가 취업모인 경우와, 편부모가정이나 계부모가정의 경우 가족 불화정도가

<표 10> 여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효과

변인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부모감독	가족불화	부-자녀 의사소통	모-자녀 의사소통			가정불화	모-자녀 의사소통			가정불화	모-자녀 의사소통
학년(Y1)	.055	-	-.010	.027	.018	.018	.055	-	.033	.022	.057	-	.035	.022
학년(Y2)	.066	-	.035	-	.018	.013	.055	-	.040	.015	.057	-	.042	.015
이성교제(D1)	.011	-	.025	-	-	-.014	-.017	-	-	-.017	-.017	-	-	-.017
이성교제(D2)	.017	-	.017	-	-	-	-	-	-	-	-	-	-	-
모취업여부	-.123	-.085	.015	-.053	-	-	-.145	-.085	.060	-	-.141	-.077	-.064	-
가족유형	.025	-	-.028	.044	-	.009	.061	-	.050	.011	.063	-	.052	.011
부모 감독정도	.112	.112	-	-	-	-	-	-	-	-	-	-	-	-
가족 불화정도	.303	.303	-	-	-	-	.343	.343	-	-	.361	.361	-	-
부-자녀간 의사소통	-.122	-.122	-	-	-	-	-	-	-	-	-	-	-	-
모-자녀간 의사소통	-.100	-.100	-	-	-	-	-.120	-.120	-	-	-.123	-.123	-	-

높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1학년보다 2, 3학년이, 편부모가정이나 계부모가정의 경우,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경우 어머니와의 대화가 원활하지 못하여 이것이 여학생의 외현화문제와 총 문제행동을 증가 시키는데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각 변인들이 여학생의 내재화, 외현화문제, 총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것은 <표 10>과 같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남·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가족심리적 환경과 문제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고, 청소년의 개인변인과 가족변인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 가족심리적 환경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본 결과, 부모감독정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지각한 반면 가족 불화정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중간수준이었다.

부모의 감독정도에 대해 남녀 학생 모두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는 것은 이 시기의 부모들이 자녀의 집밖에서의 생활이나 친구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청소년기의 특성인 부모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 추구에 대한 욕구(유안진, 1992)와 관련지어 볼 때 중학생들이 부모의 감독 수준을 과대평가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가정불화가 높은 것으로 지각한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부모의 감독정도가 높고 어머니와 더 개방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것으로 인지하였다.

부모의 감독정도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여러 선행연구들(김순옥, 1995; 김준호·전은경, 1995; 오미경, 1997, 1998; Richardson et al, 1986)과 결과를 같이 하지만, 성별에 따라 부모의 감독정도에 차이가 없다고 나타난 남현미(1999), 박진경·도현심(2001)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한다는 결과는 장호선(1987), 김진희(1988), 김순옥(1995), 김오남·김경신(1995), 정유미(1997), 남현미(1999), 이은아(2000), 박진경·도현심(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동성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이성부모와의 의사소통보다 잘 이루어진다고 한 옥선화(1985), 방문희(1991), 김양숙(1995)과도 부분적으로 결과를 같이 하였다. 하지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더 개방적이라고 한 김정희(1987)의 연구나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 권혜진(1993), Barnes & Olson (1985)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에게 자기노출을 많이 하는 이유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서적 친밀감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통해 어머니와의 친밀성을 유지하며, 또한 다른 성보다 같은 성의 부모-자녀간에 더욱 친밀하다는 점(Crouter, Helms-Erikson, Updegraff & McHale, 1999)을 감안할 때, 어머니와 같은 성의 딸이 아들보다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청소년 문제행동의 수준은 중간정도였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행행동이 많았고, 그 외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내재화 문제,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자해/정체감, 총 문제행동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노숙영(1998), 서선주(1999), Sattin & Kerr(2000), 김혜영(2000), 박진경·도현심(2001)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여학생이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등 내재화 문제를 많이 보이는 이유는 남·여학생이 경험한 양육행동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릴 때부터 남아에게는 독립적, 적극적인 면을 기대하는 반면, 여아에게는 소극적이고 복종적인 면을 기대하며 사회화시킬 뿐만 아니라 남학생에게는 공격성을 허용하면서도, 여학생에게는 공격성에 대한 억압을 더 많이 하고 있다. 따라서 여학생은 비행행동 같은 외현화 행동보다 우울이나 위축 같은 내재화 행동이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비행항목에 있어서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직접적 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즉,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더 충동적이며, 외향적이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많기(홍경자, 1995) 때문에, 문제행동이 밖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셋째, 개인변인과 가족변인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남학생의 내재화, 외현화문제와 총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월 소득, 가족 불화정도, 모-자녀간 의사소통이었다. 즉 남학생은 월 소득이 많을수록, 가족의 불

화정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문제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월수입, 모 취업유무, 모와의 대화시간, 이성교제 등이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학생의 경우 내재화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모 취업여부, 부모 감독정도, 가족 불화정도, 부-자녀간 의사소통이었고, 외현화문제와 총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년(Y1), 이성교제(D1), 가족불화정도, 모-자녀간 의사소통이었다. 그 외 모 취업유무, 학년, 가족유형, 부모 대화시간, 이성교제 등이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상에서 남·녀 중학생 모두 문제행동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가족 불화정도였으며 다음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개인변인은 남녀학생들의 내재화, 외현화문제, 총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족심리적 변인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구조적 변인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가정의 소득수준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모 취업유무, 가족유형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남학생은 가정의 월 소득이 많은 경우에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남학생의 용돈사용 지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가정소득이 적을수록 문제행동이 많이 보인다고 한 선행연구(신효식·이경주, 1998); 한미현, 1996)와는 차이를 보인다. 반면 여학생은 모 취업유무가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여학생은 어머니가 취업을 하고 있을 경우 내재화, 외현화문제 및 총 문제행동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머니가 취업을 할 경우 여학생에게 주어지는 가사의 부담과 함께 어머니와의 적절한 정서적 교류가 부족하므로 위축되거나 비행행동에 접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가족유형은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부, 편부가정이 문제행동의 빈도가 높다는 강현미(1999)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최근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다루는 접근방법으로

가족체계론적 입장에서 가족과정 및 상호작용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많다. 한 개인의 역기능적인 행동은 한 개인의 내적인 병리때문이라기 보다는 가족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부적절한 인간관계와 대인관계의 갈등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다. 연구결과 가족의 물리적 환경변인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보다는 가족의 상호작용 유형과 정서적 분위기와 같은 가족의 심리적 환경이 청소년 문제행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특히 부모와의 의사소통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방식이나 기술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본 연구에서도 가족심리적 변인에서는 가족 불화 정도, 모-자녀간 의사소통은 남·여학생의 문제행동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감독정도는 여학생의 내재화문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에 이르면 청소년들은 또래와 다양한 관계를 맺고 관계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자녀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조절하는 감독자로서의 부모역할은 자녀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감독정도는 남학생의 경우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여학생의 내재화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감독정도가 통제적이고 강압적일 때 여학생들은 위축되며 우울, 불안 수준이 높았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얼마나 잘 감독과 통제를 하느냐가 청소년비행과 연관이 있다고 한 석말숙(1988)의 연구와 부모의 양육태도가 지나치게 통제적이거나 강압적일 때 자녀의 비행의 빈도가 많아진다는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정상집단과 문제행동집단을 분류하여 조사한 손석한 외(2001)의 연구에서 청소년 문제집단이 정상집단보다 부모로부터 과잉간섭 및 과잉기대를 받았을 때 내재화문제가 많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며, Rey & Plapp(1990)은 부모의 높은 과보호적 태도가 우울, 불안, 위축, 신체화 등의 내재화문제와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부모의 통제적 태도가 자녀의 내적인 동기나 창조성을 저해(Koestner, et.al, 1984)하며, 융통성있는 사고능력을 억제하므로 결국 자녀들은 내재화 문제

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녀학생 모두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변수가 가족의 불화정도와 의사소통으로 나타나 가정의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가족관계나 대화의 질적인 변인 즉 심리적 변인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가족의 불화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의 불화가 심각한 경우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년 문제행동 및 비행이 조장된다는(최응열, 1984) 가족해체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부부간의 갈등, 불화는 자녀 인격형성을 저해(Grgan, 1971)하는데 가족구성원들이 갈등과 긴장감으로 가정생활을 계속할 때 자녀들은 가족보다는 또래의 가치관을 추구하게 되고 반사회적인 비행집단에 들어가 그 집단의 가치기준을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 불화정도,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 남현미(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부모가 개방적이고 축진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의 비행이 많이 줄어든다고 한 이명숙(1991), 노성향(1994)의 연구와도 결과를 같이 하였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자주 접촉하며 어머니를 가장 가까운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서 가정은 다양한 면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흔히 결손가정이나 빈곤가정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경우가 있으나 가족의 구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서도 가족의 구조적 측면이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가족 내부의 심리적·질적인 면에 비하면 그 영향력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인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열린 대화를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원만하고 화목한 가정분위기가 중요하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 중 초기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들로 대상을 한정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시켜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에서 청소년의 개인변인과 가족변인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청소년의 개인 내적 변인이 포함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의 화목을 향상시키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실제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경아(1997). 부모의 자녀학대와 청소년의 부적응,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현미(1999).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커뮤니케이션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상미(2000).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성혜(1994). 청소년기 가족문제-청소년이 겪고 있는 가족내 문제의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권혜진, 윤종희(1992).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4(1), 167-177.
- 권혜진(1993). 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기광도(2001). 사회계층과 범죄행위간의 관계: 자녀 양육 및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화(1989).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두섭, 민수홍(1996).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 억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두식(2000). 비행청소년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비행성향 및 자살충동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자, 이정우, 계선자, 박미석, 박수선(2000). 새밀레니엄에서의 청소년 문화창조를 위한 생태학적 지원체계(II)-청소년 자녀와 부모가 인지한 가족의 심리적 환경 비교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9), 41-55.
- 김선미(1995). 가족관계와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옥(1995). 10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사소통행위 분석-부모교육과 관련하여-. 대한가정학회지, 33(6), 1-10.
- 김양숙(199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내외 통제성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수(2000).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심리적 가정환경 요인과 개선방안.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오남(1994).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족 스트레스.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오남, 김경신(1994).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유형 지각과 가족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32(3), 105-119.
- 김윤정(1999). 우울성향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희(1993). 성격변인이 추적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충동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미(1998).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1987). 어머니와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형

- 태와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분(1994). 어머니-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준호, 김은경(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진숙(1984).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1989). 부모-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영(2000).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심리사회적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현미(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숙영(1998). 중학생의 학교적응, 학업성취, 정서 및 문제행동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영송(1991). 가정환경과 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혜영(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주(1994).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 응집력 및 적응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수(1991).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심층적 면접에 의한 분석.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용규(2000).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임규(1998). 청소년 비행과 가정환경 요인의 관계 연구. 순천향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경, 도현심(2001) 어머니의 감독(monitoring) 및 감독방법이 청소년의 외현화·내면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12), 129-140.
- 방문희(199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연화(1998). 가족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선주(1999). 아동의 역량지각과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3), 97-106.
- 송광섭(1998). 범죄학과 형사정책. 서울: 유스티니아누스.
- 신수정(1994).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효식, 이경주(1990). 청소년기 자녀의 아버지와의 커뮤니케이션과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 양정화(1996). 중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학생, 교사, 부모의 의견 차이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미경(1997).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위험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8(1), 109-123.
- 오연옥(1988). 사춘기 자녀와 어머니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옥선화(1985). 자녀문제와 대책-청소년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박금순 편저.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 보이서사.
- 우대식(1992).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각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덕중(1984). 범죄 사회학. 서울: 박영사.
- 이결남(1989). 어머니와 여고생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 및 대화내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애(2001). 우리나라 보육시설 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경주(1989). 어머니의 청년기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전남대

-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1993).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 만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수(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수준, 반발심 및 문제행동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아(2000). 청소년의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심리적 행동적 부적응.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순(1983).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호선(1987).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청소년기 자녀를 중심으로-.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미(1997).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아미, 권두승(1998). 자아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한 비행청소년의 문제행동 결정요인. 청소년학연구, 5(3).
- 최영화(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유형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경자(1995). 중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유형 및 성별이 중학생의 갈등표출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연표(1998). 청소년비행 문제해결을 위한 학교 교육 재정립 방안.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chenbach, T.M. (1991b).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Univ.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chenbach, T., & Edelbrock, C.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Thomas Achenbach.
- Barber, B. K. (1992). Family, Personality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1), 69-79.
- Barnes, L.H. & Olson, D.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Olson, D.H., McCubbin, H.I., Barnes, H., Larson, A., Muxen, M. & Wilson, M.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M.N.: Univ. of Minnesota.
- Belson, W.A. (1975). *Juvenile Theft: The Causal Factor*. London: Harper & Row.
- Bolger, N., DeLongis, A., Kessler, R. C., & Wethington, E. (1989). The Contagion of Stress Across Multiple Ro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175-183.
- Cernkovich, S.A. & Giordano, R.C. (1987). Family Relationship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5, 295-321.
- Clark, J. P. & E. P. Wenninger (1964). Socio-economic Class and Area as Correlates of Behavior among Juveni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7, 826-834.
- Crouter, A. C., Helms-Erikson, H., Updegraff, K., & McHale, S. M. (1999). Conditions Underlying Parents' Knowledge about Children's Daily Lives in Middle Childhood: Between- and within- Family Comparisons. *Child Development*, 70, 246-259.
- Galvin, K.M. & Brommel, B.J. (1986). *Family Communication-Cohesion and Change*. 2nd ed. Illinois: Scott, Foresman & Company.
- Gibbs, J. J., D. Giever, and J. S. Martin. (1998). Parental Management and Self-Control: An Empirical Test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 40-70.
- Gold. (1963). *Status Forces in Delinquent Boys*. Ann Arbor: Univ. of Michigan Press.
- Grotevant, H.D. & Cooper, C.R. (1986). Individuation on Family Relationships. *Human Development*,

- 29, 82-100.
- Hetherington, E.M. & Parke, R.D. (1986). *Child Psychology: A Contemporary Viewpoint*. 3rd ed. N.Y.: McGraw-Hill.
- Hirschi, Travis. (1969). *Causes of Delinquency*. Univ. of California Press.
- Hovland, N.H. (1953).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Univ. of Yale Press.
- Jensen, G.F. (1972). Parents, Peers and Delinquent Action: A Test of the Differential Association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562-575.
- Kerr, M. & Stattin, H. (2000). What Parents Know, How They Know It, and Several Forms of Adolescent Adjustment: Further Support for a Reinterpretation of Monito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3), 366-380.
- Loeber, R. & Stouthamer-Loeber, M. (1986). Family Factors as Correlates and Predictor of Juvenile Conduct Problems and Delinquency. In M. Tonry and M. Morris(ed). *Crime and Justice: An Annual Review of Research*, 7, 29-149.
- McCord, Joan. (1979). Some Child-Rearing Antecedents of Criminal Behavior in Adult 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477-1486.
- McCord, J. (1991). Family Relationships, Juvenile Delinquency, and Adult Criminality. *Criminology*, 29, 397-417.
- Olweus, D. (1977). Aggression and peer in adolescent boys: Two short-term Longitudinal studies of ratings. *Child Development*, 48, 13001-1313.
- Parke, R.D. & Slaby, R.G. (1984). The Development of Agression. In E.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4, N.Y.: Wiley.
- Patterson, G.R.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A Social Learning Approach*: Eugene: Castalia Publishing Company.
- Patterson, G.R. and T.J. Dishion (1992). Contributions of Families and Peers to Delinquency. *Criminology* 23: 63-79.
- Polakowski, M. (1994). Linking self- and Social Control with Deviance: Illuminating the Structure Underlying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its Relation to Deviant Activit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0, 41-78.
- Pulkkinen, L. (1981). Search for Alternatives to Aggression in Finland. In H.C. Quay(ed), *Juvenile Delinquency*: 36-99. Princeton, New Jersey: D. Van Nostrand Co. Inc.
- Quay, H. C. (1972). *Psychopathological disorders of childhood*,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Repetti, R. (1989). *Daily Job Stress and Father-Child Interaction*.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Kansas City, MO.
- Richardson, R. A., Abramowitz, R. H., Elliott Asp, C., & Petersen, A. (1986).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Early Adolescence : Effects of Family Structur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4), 805-811.
- Smith, D.A. & Paternoster. (1987). The Gender Gap in Theories of Deviance: Issues and Evidence. *Th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4, 140-172.
- Weintraub, K.J. & Gold, M. (1991). Monitoring and Delinquency. *Criminal Behavior and Mental Health*, 1, 268-281.
- Wells, L. E., and J. H. Rankin. (1988). Direct Parental Control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 263-285.
- Williams, Frank P. and McShane, Marilyn D. (1994). 박승위 역, 사회문제론, 민영사.
- Wilson, H. (1980). Parental supervision: A Neglected Aspect of Delinquenc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0, 203-235.

(2003년 2월 26일 접수, 2003년 6월 18일 채택)